

18-19세기 러시아 탐험가들에 의한 동해·일본해 명칭

N.G.Razjigaeva

(러시아 과학원 태평양지리연구소 연구원)

18세기 초, 북태평양에 대한 탐험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북태평양의 운곽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동해/일본해의 위치 또한 추정될 뿐이었다. 18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들에는 동아시아와 섬들이 매우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최초의 러시아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해양에 대한 명칭은 없거나 "Sea-Ocean"이라 적혀있다.

이 시기 일반적인 지도들은 East Sea/ Sea of Japan 과 Pacific Sea, Bering Sea, Okhotsk Sea 등의 다양한 바다 명칭들을 포함하고있다. 이 때 지리적 조사들은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해협과 미국에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들 자료에서 대개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태평양은 보통 "East Ocean" 혹은 "East Sea" 또는 "Calm Pacific Ocean" 혹은 "Calm Sea"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몇몇 유럽지도에서 태평양은 "Oceanus Melidionalis" 와 "Mer de Sude"(South Ocean)란 이름을 갖고 있다.

1734년 이후 발견된 몇몇 고대 지도에서, 일본 동해("Mare Japonicum Orientale")와 일본 서해("Mare Japonicum Occidentalis")란 명칭은 Noribergae의 Homann Atlas Geographicus Universales 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 명칭은 일본 열도의 동부와 서부에 있는 해양 공간을 부르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의 러시아의 지리 문헌들(지도와, 여행기 등)에서는 한국해("Korean Sea")가 일본과 대륙 사이의 바다에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신대륙의 발견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리적 탐험의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지형과 천문 관찰을 통한 동해/일본 해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러시아 탐험가들의 활동적 지리 조사들은 19세기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19세기 전반의 지도들과 러시아 탐험가들의 글들에서는 “Korean Sea”와 “Sea of Japan”이 나란히 병기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의 지도들에서는 오직 “Sea of Japan”만이 사용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태20세기 초까지 태평양은 “East Ocean”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